

있읍니다. 五月二日 아침 十一시 台北을 떠나 午後 三時 日本 大阪에 도착하여 奈良으로 直行하였읍니다. 五月三日에는 奈良博物館(刺繡佛教美術展) ↓ 依水園(宋과 高麗陶磁器展) ↓ 大和文華館(日本近代繪畫展)을 順次로 들었으며 四日에는 다시 大阪에서 京都大學의 「第三次이란·아후가니스탄·파키스탄 調査報告會」에 參席할 수 있었으며 講演이 끝난 다음 水野精一 教授一行 四·五人과 부근의 다방을 찾아 우리나라 佛教美術을 이야기하였읍니다. 五日에는 京都에서 梅原 有光 兩教授를 만날 수 있었고 每月二回 公開하는 有隣館을 찾아 中國石像을 다시 대하기도 하였읍니다. 또 이날 저녁에는 東京行 航空便의 出發時間을 이용하여 大阪비행장에서 멀지 않은 藤澤氏를 訪問하여 우리나라 扶餘에서 結婚하였다는 그들 夫妻의 환영을 받기도 하였읍니다. 六일부터 八일까지의 三日間 東京에서는 上野에서 開催中인 關東亞展이 기억을 새롭게 하였으며 東京藝大의 松本榮一 教授와 中吉功氏, 同窓인 印翹煥氏 金大鉉君 등과의 再會를 즐기도 하였읍니다. 五月九日 CAT의 ジェット機便으로 十時넘어 金浦空港에 나섰읍니다. 五個月만에 對하는 山川과 서울의 거리는 虛脫과 窳相이 뚜렷하였읍니다. 혼자서 집에 돌아와 自身과 家族의 無事함을 고맙게 생각하였으며 同人과의 再會를 반가워 하였읍니다(完)

〔訂正〕 前號(四一八) 報載紀行에 添附된 寫眞(上)은 廢塔(짜이부리 보안탄)이 었기 訂正합니다(三四頁上段十三行)

石窟庵通信(十二)

鄭 明 鎬

一、工事關係

1. 二重窟

二重窟 콘크리트 施工이 本格的으로 進行中이다. 窟背 後로부터 延長되는 排水路暗渠 配筋架設을 東北部로부터 始作(8/4). 窟의 基礎配筋은 東北(8/9) 南西(8/2)에서 着手되어 콘크리트 壁體進行. 窟 뒤의 岩盤 上面에는 階段基礎가 마련되고 있으며 동시에 穹窿形의 堰槽를 架設中이다(8/27). 前室아치 위의 石築을 除去키 위하여 補強用木造架構를 세웠다(8/23).

2. 前室

前室의 平面과 樣式은 確定되었었다. 單層 팔각 지붕의 正面三間 側面二間이며 樣式은 現存最古遺構에서 採擇하고 拱包部分과 門扉만은 新羅石造遺構 特히 佛國寺와 石窟 自體에서 본따기로 하였다. 屋蓋는 羅代의 手法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九월一日부터 製材를 進行하고 있다. 이 期間中 十分之一의 前室模型이 完成되었으며 또 前室과 窟과의 調整도 決定되었었다.

二、環境整理 設計

窟과 前室工事が 進展함에 따라 石窟庵 周邊 地形模型이 作成되고(8/12) 새로운 設計案에 着手하였었다(8/28).

三、調査關係

(1) 콘크리트 施工에 따르는 配合과 強度實驗을 嶺南國土建設局에 依頼. 蓋瓦 注文을 위하여 蔚山과 경주 乾川工場의 施設과 土質 등을 調査(柳海宗)하였고 既成品의 強度와 含水度를 實驗하였었다.

(2) 8/8 佛國寺(아치 石築 檐遮 柱頭) ↓ 嶺項里寺址塔(門扉) 8/10 高仙寺址塔(門扉)(金光洙 申榮秀) 8/28 九政里方形古墳(門扉及 石築)

(3) 壽光殿으로 올라가는 階段에서 心枋石片(8/13)發見. 前室入口 左右의 檐遮石에서 中間空을 끼었던 彫刻手法이 새로이 調査되었었다(8/16).

(4) 오래동안 行方을 찾고 있던 縣板「石窟重修上棟文」(本誌 資料 參照)이 庵子北方 便所 板壁에서 發見되었는데 頭尾가 切斷되어 있었다(露出된 東面).

四、人事往來

8/9 文化財委員 金岸基 李弘植 李相伯 金元龍 鄭文化財管理局長 金道教育局長 一行 8/19 鄭永鎬 8/26 文化財委員 金載元 李敏載 9/1 國博 金正基 張南植 金錫淳 慶北博 尹容鎮 安東郡廳 安承一

第四卷 第十號 通卷三十九號

永同新項里三尊佛石像

秦 弘 燮

永同郡 龍山面에 三尊石像이 있다는 말을 들은지는 오랫동안이나 今年 八